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대성전 |
| 청년 미사 |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
| 혼인 성사 |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
| 유아 세례 |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
| 예비신자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
| 견진 교리 |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 6/15(월)-6/25(목) 안 마리루시 수녀의 북미주 수녀연합회 연중피정 및 총회 참석으로 사무실을 닫습니다. 성당 관련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영성의 해’ 영성특강 전체 일정

| | | |
|---------------|-------------------------------|--------------------------------------|
| 3/15 (주일) |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
| 5/17 (주일) |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 Fr. 이용호 프란치스코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 6/14 (오늘) |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 Fr. James Gannon OFM (작은형제회 미국관구) |
| 7/5 (주일) |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 이설빈 세레자 요한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 10/11 (주일) |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 11/15 (주일) |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 12/13 (주일) |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2026년 주일학교 종강기념 및 방학식

주일학교에서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6월 14일- 9월 12일까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기간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몸과 마음이 한층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6월 14일(오늘), 12시 30분, 산 다미아노홀

6월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일시: 6월 16일(화) 7:00PM,

장소: 산 다미아노홀

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6월 21일 Father's Day 행사

Father's Day를 맞아 형제님들께 꽃 증정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미사 전에** 성당 입구에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7년 달력 광고 신청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을 제작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기간: 6월 14일(주일)- 7월 26일(주일)까지

신청: 재무 데스크(*광고 게재비는 추후 공지할 예정)

*광고 신청하신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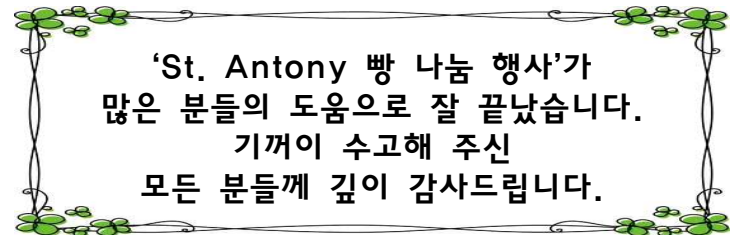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예수회 호주 관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신용문 야고보 신부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오늘의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9,8)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홍익만 안토니오
(? ~1802)



홍익만 안토니오는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양근에서 살다가 한양 송현으로 이주하였다. 순교자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서사촌 동생이요, 홍필주 빌립보와 이현 안토니오의 장인이다.

그는 1785년경 천주교 교리를 접한 뒤 교회 서적을 읽고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1796년에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교리를 배우며 성사를 받았다.

또한 신자 공동체를 만들고 도왔으며, 때때로 주 야고보 신부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는데, 당시 그의 집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하부 조직이자 집회소였던 '육회(六會)'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안산과 여주로 피신해 다니다가 스스로 체포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교우들을 밀고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받았지만,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는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마음을 바꾸어 신앙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은 홍익만 안토니오는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 서소문 밖(또는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86, 가해, 2026. 06. 14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요한 복음 12,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전반부를 마무리한 다음, 13장부터 17장까지 유명한 “고별 담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긴 말씀이지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시면서, 식구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우리 집안에 믿을 것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앞으로 잘 살까 고민하시고 하신 말씀이시겠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바라셨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 각자가 흩어져서 뛰어난 사도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은,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13,14)라고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다투어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일치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도 있고(13,21),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지만(13,38),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3,35). 이런 공동체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14,26)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그 공동체의 일치의 중심이 됩니다. 어느 한 사도가, 어느 한 인물이 그들을 하나로 결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장에서 그 일치의 중심에는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자들은 가지로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15,12). 그리고 16장에서는 다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16,7).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슬퍼하지만, 한 장소에 눈에 보이게 머무시는 예수님의 현존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어 온 세상의 교회를 일치시키실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17,21). 매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들은 전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쟁은 다 설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인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분열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일치는 성령을 통해서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원하신 대로, 교회가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며 일치를 추구합시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6, 2026. 06월 14일



그림 묵상

파견 | 종이 한 장을 열들로 나누고, 사방으로 벌여봅니다. 따로 놓지 않게 서로의 모서리는 붙여두며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와 미션은 각각이지만 파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물 오른 부름켜가 낡은 껍질을 갈라놓듯, 몰랐던 기쁨이 안으로부터 벽차오르면, 수동적 응답도 능동적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비록 이웃의 모습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안배와 조화를 위해 마련하신 섭리이고 풍요로움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17호, 2026년 6월 14일(가해)